



미 주요기관, 상반된 경제지표 발표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8월 12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0.5%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, 같은 날 발표된 톰슨로이터/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98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54.9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냄.
 - 8월 12일 미 상무부는 7월 소매판매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0.5%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자동차 판매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매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.
 - 그러나 같은 날 톰슨로이터/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198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54.9로 나타났는데, 이는 전문가 예상치 63.0과 7월 소비자 신뢰지수 63.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임.
 -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가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으로 분석됨.

- 8월 16일 연준이 발표한 7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을 중심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, 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NAHB/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.
 - 8월 16일 연준이 발표한 7월 산업생산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0.9%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, 이는 일본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부품 공급망이 복구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5.2%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.
 - 반면, 8월 15일 전미주택건설업협회(NAHB)가 발표한 7월 NAHB/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는 투자 심리 악화의 기준점인 50을 크게 하회하는 15로 나타났으며, 이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주택수요 둔화, 압류물건 증가,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.

(New York Times 등, 8/12)